

【P4-17】

대학생들의 길거리음식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효미, 우정인, 최미현, 김기남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길거리음식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먹거리 문화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먼지와 소음 등 불량한 주위 환경 및 음식 취급시의 비위생적인 면, 주변 환경과의 마찰이나 도시 경관의 손상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가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길거리음식 중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하여 그 위생정도를 실험에 의하여 확인해 보았고, 아울러 대학생들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길거리음식의 이용빈도에 영향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여부, 자취여부, 비만도 등), 식행동, 간식 이용, 영양과 위생에 대한 관심도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충북대학교 재학생 264명이었고,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AS/Windows 8.1을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값을 구하였고, 요인 상호간의 관련성은 chi 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길거리음식의 대장균군수와 일반 세균수의 수치가 모두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며, 기름의 산가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위생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5.8%가 평소 식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아침식사를 불규칙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다. 간식섭취에 있어서는, 간식을 자주 먹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60.6%였다. 길거리음식의 이용빈도는 주 2~3회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하가 29.9%로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음식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빠르고 간편해서(32.8%), 맛있어서(23.5%), 가격이 저렴해서(21.9%) 등의 순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는 떡볶이, 탕수육, 순대 순이었으며 음식의 영양면에 대한 관심보다(42.8%) 위생에 대한 관심 더 높게(52.7%) 나타났다. 길거리음식점내의 위생상태 평가에서, 비위생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는 튀김기름(90.8%), 행주(84.0%), 설거지물(79.5%), 간장 및 초장(78.0%)순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단속 여부 의견에 있어서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서 더 지배적이었다. 길거리음식의 이용 빈도에 영향미치는 요인을 보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그룹, 영양과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그룹, 간식 빈도가 많은 그룹이 길거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여부와 관련성에 있어서는 전공자들이 영양과 위생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길거리음식을 이용하는 빈도에 있어서는 비전공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용돈수준, 자취여부, 비만도는 길거리음식의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길거리음식이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자주(1주일에 1회 이상 이용자가 70%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여부가 길거리음식의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보다 실제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